러시아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

1. 최근 동향

□ 외국 기업이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확대 견인

◦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인구 대비 자동차 소유 비율이 낮고 소득수준 향상으로 고급 수입차 분야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어 외국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 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판매와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어 러시아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 주요 진출기업은 포드, 도요타, 닛산, 폭스바겐, 푸조, 스즈키, 현대, 기아, 볼보 등이며, 합작회사로는 GM-AvtoVaz[1]와 Avtoframos[2]가 있음.

<표 1> 러시아의 자동차 소유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인구대비 자동차 소유비율	16.28	17.64	18.26	18.88	19.52	20.19

자료: Interfax,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d'Automobiles.

1) 지분 구성은 GM 41.5%, AvtoVaz 41.5%, EBRD 17.0%임
2) 지분 구성은 르노 24%, 모스크바시 24% 등임

□ 정부의 보호 무역정책으로 외국 기업의 진출 전략 변화

◦ 2009년 10월 승용차[3]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25% →30%)되고 자동차 산업 지원이 자국 기업에 편중되는 등 최근 러시아의 자동차 산업 정책은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음.

- 관세율 인상으로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자,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러시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진출 전략을 변경하고 있음.

2. 생산·판매 현황

□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동차의 생산·판매 저조

◦ 2009년 승용차 생산량은 598,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59.4% 감소하였음. 이 중 러시아 브랜드 생산량이 316,900대, 외국 브랜드 생산량이 281,100대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63.9%, 52.7% 감소하였음.

◦ 경상용차와 중상용차의 생산량도 각각 전년동기 대비 61.7%, 60.1% 감소하여 73,935대, 43,155대에 그쳤음.

<표 2> 러시아 자동차 생산실적 추이

단위: 만 대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f]
승용차		107	117	129	147	60	88
상용차	경상용차	19	22	23	19	7	10
	중상용차	7	9	11	11	4	5
계		133	148	163	178	71	104

자료: Global Insight.

3) 완성된 조립차 형태(CBU: Completely Built Units)

◦ 2009년 자동차 판매실적(내수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08년 대비 50.8% 줄어든 152만 대를 기록하였음.

- 지역적으로는 튜멘, 사마라, 로스토프, 스베르로프 등에서 신차 판매량이 60% 이상 급감하였음.

<표 3>　　러시아 자동차 판매실적 추이

단위: 만 대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f}
승용차		135	169	235	271	136	142
상용차	경상용차	21	23	24	23	11	13
	중상용차	8	10	15	15	5	56
계		164	203	274	309	152	161

자료: <표 2>와 같음.

□ 2010년 1~2월의 자동차 판매실적 저조

◦ 2010년 1~2월 판매량은 165,862대로 예상과는 달리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함.

◦ 2010년 2월 중 러시아의 승용차와 경상용차는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한 91,922대가 판매되었으며, 러시아 최대 판매 모델인 라다 역시 전년동기 대비 41% 감소한 17,308대가 판매되었음.

□ 폐차 보상제 효과는 예상보다 미미

◦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판매량을 20만 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2010년 3월에 폐차 보상제를 시행함.

◦ 그러나 동 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동차 소유주가 대부분 구매력이 없는 지방 거주 노인 계층인데다, 2010년 1분기에 러시아 경기회복이 둔화[4]되자 지원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하게 나타남.

폐차 보상제
2010년 3월 8일 러시아 정부는 자국 자동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폐차 보상 지원금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음. 등록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본인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5만 루블(1,750달러)씩 총 10억 루블(3억 4,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약 18만 대이고, 지원 모델은 66개로 러시아산이 대부분이며 수입브랜드의 경우에는 러시아 현지에서 조립(CKD)[5]되는 제품이 포함됨.

3. 자동차 수출입 현황

□ 2009년 경기침체 여파로 수출입 실적의 2010년 내 회복은 힘들 전망

◦ 관세율 상승, 루블화 약세로 인한 수입차 가격상승, 외국 기업의 현지 자동차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9년 자동차 수입량은 전년의 절반 수준인 891,192대로 감소함.

- 높은 실업률[6]이 지속되어 단기간 내 실질소득이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10년 내에 수입실적이 회복되기는 힘들 전망임.

◦ 상용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자동차 수출량도 2009년에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한 167,146대를 기록하였음.

4) 러시아 경제부에 따르면, 2010년 1분기의 GDP성장률은 0.6%(계절조정치)로서 2009년 3분기의 2%, 2009년 4분기의 1.7%보다 저조하였음.
5) 차체 부품까지도 완전히 단위별로 포장, 선적, 운반되어 현지 공장에서 조립 완성되는 형태(Complete Knock Down)임.
6) 2010년 들어 8~9%대의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 자동차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CIS 국가에서도 점차 외국 자동차 기업의 현지생산량으로 내수가 충족되고 있어 수출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음.

<표 4>　　러시아 자동차 교역 추이

단위: 천 대, 억 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e	2010f
수출	완성차	159	193	203	210	167	160
	금　액	30.2	36.7	38.5	40.1	22.3	24.4
수입	완성차	414	749	1,410	1,790	891	612
	금　액	87.0	157.3	296.2	377.4	210.9	212.8

자료: Interfax,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Motor Vehicle Manufacturers.

4. 전망

□ 정부, 자동차산업 지원정책 발표

◦ 러시아 정부는 총 1.79조 루블(약 600억 달러)을 투입하여 자국 자동차 산업을 10년 내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2010년 3월에는 이 중 1,800억 루블(60억 달러)을 자국 자동차 기업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정부는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3~5년 내에 자국 자동차 기업이 도태될 수도 있다고 판단, 외국 기업의 진출이 자국 기업의 기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임.

◦ 러시아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 가운데 동 지원정책이 발표되어 금년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동차 내수 판매 증가 예상

◦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0년 5월 25일 그리스발 재정위기 확산 및 루블화 가치상승을 억제하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7.75%까지 인하하였음.[7)]

◦ 러시아에서는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할부금융의 이용률이 40~50%에 이르고 있어 이번 금리인하는 자동차 판매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아울러 중앙은행이 당분간 추가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판매 증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조사역 고안나 (☎ 02-3779-5654)
E-mail: anna@koreaexim.go.kr

7) 금년 들어 네 번째 시행된 금리인하 조치임.